

# 의료기관 찾은 부산시민 70% '서비스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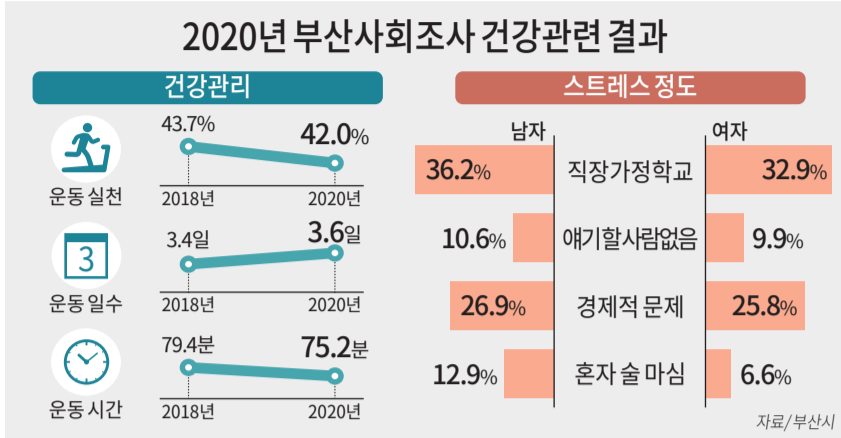
##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

시민 50%, 신종 전염병에 '불안' 전반적 사회안전 '안전하다' 37%  
소음·진동 '나쁘다' 34% 취약 부산시민이라 '자랑스럽다' 45%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사회안전 체감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는 부산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9월 진행한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밝혔다.

'부산사회조사'는 시민생활, 시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만786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안전·환경·가족·사회통합 5개 부문 13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문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건강

만 15세 이상 부산시민 10명 중 8명이 지난 1년간 몸이 아파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자 중 57.4%가 '외래 중심 의원'을 이용했다. 의료기관 선택 사유로는 '집, 직장과 가까워서'의 응답 비율이 68.7%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에서 70.1%가 '만족'한 것에 비해 '불만족'은 2.4%로 나타나 부산의 의료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 안전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종전염병'의 인식에 대해서 50.3%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안전'의 인식

에 대해 '안전하다'가 37.4%, '불안하다'가 16.1%로 나타난 것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안전 안내 문자 등), 코로나19 적극 대응(드라이브 스루 도입 등)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이 시민들의 안전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 환경

현재 사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중 '소음·진동' 부분의 '좋다' 비율(24.3%)보다 '나쁘다' 비율(33.5%)이 9.2%p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소음,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건설소음 등의 요인으로 보인다.

### ◆ 가족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유자녀 부부(부모 비동거)'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비율은 감소했다. 독신, 무자녀 부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과의 식사, 보살피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 ◆ 사회통합

부산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45.7%인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6.6%로 나타나 시민의 자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정주의사를 묻는 문항에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73.7%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주의사가 높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에서 10점 만점에 5.8점으로 2019년 대비 0.2점 증가해 부산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에는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부산=허외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 동네방네



미래농업과

### 상주농기센터, 미생물관 유용미생물 5종 210톤 공급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2013년 개관한 농업미생물관을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유용미생물 5종 9152건 210톤을 공급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유용미생물은 효소, 호르몬, 항생물질 등을 분비하여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시키며 가족 장내 유익미생물을 유지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축사 악취저감, 자가 발효 사료 이용 등에 효과가 있다. 상주시는 2021년도에도 농업미생물을 공급한다. 분양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미생물 공급카드를 발급 받은 후 매주 월, 화, 목요일에 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관으로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유용미생물 분양 및 사용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관으로 하면 된다.

(/경북)상주=김홍기 기자 gi2136@



경북소방,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로 도민 안전 확보.

## 연말연시 119 신고 16% ↓ 경북도, 도민안전 '이상무'

경북소방본부, 신고 총 5353건 화재발생 28건 전년비 20% 줄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연말연시 철저한 예방활동과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도내 큰 사고가 없이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기간 중 119신고횟수는 총 5353회(1일 평균 1512회)로 전년(1일 평균 1806회) 대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건수는 28건으로 전년대비 20.2% 감소했으며, 부상 1명과 1억 2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조는 총 288회 출동하여 27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했으며, 구급은 총 1256회 출동하여 702명을 이송했다. 이는 전년대비 구조 20.6%, 구급 16.8%가 감소한 수치다.

또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코로나19 상담 및 병의원 안내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건수도 819회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

움을 줬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화재, 구조, 구급 출동 건수가 감소한 것은 연말연시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지정으로 도민들의 야외활동 감소와 이동이 줄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및 해맞이 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불량 요인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한편, 지역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화재취약시간대 전통시장 순찰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발 앞선 행정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로 현장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해 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2021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김천사랑상품권·카드 연중 10% 할인

가맹점 4200곳 이상 확보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를 2021년 연중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김천시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김천사랑상품권을 5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가맹점 또한 4200개소 이상 확보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별할인 기간 동안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를 구매하면 월 최대 7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김천사랑상품권 및 카드는 관내 47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은행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 '그리고'를 내려 받아 카드를 신청하고 충전할 수 있다.

김천시는 김천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으로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사랑상품권은 오직 김천시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함께 잘사는 상생경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김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김천=김홍기 기자 gi2136@

## 무안군, 인구감소 대처... 10만 달성 총력

0~5세 무상보육 지원 등 사업발굴

전남 무안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무안은 1969년에 14만 4000명이라는 최고 인구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6만 2000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전남도청 이전과 오룡지구 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8만 60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17개 군단위 지자체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서는 자연감소가 계속되어 지난 4월에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0~5세 무상보육 지원과 같은 국가정책과 함께 해피마미 출산 준비교실, 가족센터 건립 등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인구늘리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전입하는 기업체 임직원과 군장병의 상품권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내 대학교 재학생도 4년간 총 80만원을 지원한다.

무안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 영양군, 민원 지연처리 0건 지난달 단축률 63% 달해

영양군은 지난해 12월의 지연처리 민원은 0건이며, 민원처리 단축률은 16%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군 자료에 의하면 단축률은 전월(46.16%)에 비해 16.44% 상승하여 62.6%로 이는 민원 10건 중 6건을 단축 처리한 것이며, 특히 7월 이전 월 평균 20건 정도였던 지연민원은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지연처리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힘썼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에는 경북도내 최초로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도 구축했다.

(/경북)영양=김태우 기자 ktu3987@

## 1천억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1분기 10% 할인판매 지속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품권 발행·유통액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일반판매분 507억원과 농어민 공익수당·취약계층 생계비·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책분 329억원 등 총 836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됐다. 시는 올해 1분기 지류·카드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상품권 발행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내 상품권 가맹점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에 따른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효과노릇을 톡톡히 해왔다고 나주시는 밝혔다.

(/전남)나주=강성대 기자 ksd1008@